두산과 시즌 첫 만남 이의리 "매 경기 성장하고 싶다"

KIA, 안방에서 주말 3연전
직구 제구력과 체인지업 숙제
투구 패턴 다양성 살리고
꾸준하게 6이닝 던지는게 목표

KIA 타이거즈의 이의리가 '낯선 상대' 두산 베어스를 통해 테스트를 받는다.

KIA는5일부터안방에서 두산과 주말 3연전을 벌인다. 타이거즈의 미래 이의리도 마운드에 올라 '천적 관계 정리'에 나선다 .

최근 3년간 KIA는 두산에 11승 35패 2무(승률 0.239)를 기록하며 가장 약했다.

올 시즌은 상황이 다르다. 5월 31일부터 진행된 두산과의 원정 3연전에서 역전쇼를 펼치며 2014년 6월 22일 잠실전 이후 2902일 만에 두산전 싹쓸이 3연승을 기록했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6승 3패. 순위도 KIA가 5위로 한 단계 위다.

이의리는 이번 3연전을 통해 두산과 시즌 첫 대결에 나선다.

올 시즌 선발로 19경기에 나선 이의리는 아직 두산과 만나지 않았다. 프로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에도 한 차례 대결에 그쳤다.

이의리는 낯선 상대와의 만남을 통해 두산전 우위 잇기라는 팀의 목표와 함께 이닝과 피홈런이라는 개인적인 키워드를 점검한다.

이의리는 올스타브레이크 기간에도 운동을 하면서 후반기 시작을 기다렸다. "해보고 싶은 게 많다"는 게 이의리의 설명이었다.

후반기 최우선 목표는 이닝이다.

이의리는 "안 다치고 길게 던지는 게 목표다. 매 경기 던지고 나면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남았다. 욕심이 많아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미 지난 것이니까 앞으로 신경 쓰겠다"며 "꾸준하게 6이닝을 던져보고 싶다. 그것 하나만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안 좋아도 6이닝을 던져주는 게 목표다"고 이야기했다.

후반기 두 경기에서 이의리는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

7월 24일 롯데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30일 SSG전에서는 4이닝 4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그만큼 올 시즌 처음 만나는 두산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피홈런은 이의리가 신경 쓰는 또 다른 부분이다.

이의리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변회구를 70% 비중으로 던지는 것도 있다(웃음). 투구 패턴에 다양성을 두고 던져보고 싶다. 직구도 자유자재로 던지고 싶은데 아직 제구가 안 된다. 될 것 같은데 시합 때 힘이 들어간다"며 "그 부분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홈런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올 시즌 전반기 최종전 불펜 등판 포함 20경기에서 107.1이닝을 소화하면서 14개의 피홈런을 남겼다.

이의리는 "반대구는 세계 던져도 힘이 없다. 아무리 세게 던져도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반대구가 나왔을 때 홈런이 많이 나온다. 타이밍이 잘 맞는다. 아직은 마운드에서 여유가 없다. 세게 던져야만 할 것 같다. 세심하게, 섬세하게 하고 싶다. 쉽게 쉽게 던지면서 상대를 압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체인지업도 이의리의 숙제다. 지난 시즌 이의리는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뺏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올 시즌에는 실전에서 뜻대로 체인지업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의리는 "시즌 시작할 때부터 감은 좋았다. 느낌은 좋았는데 시합 때 안 된다. 시합 앞두고 마운드에서 연습구 할 때도 잘 되는데 막상 시합 때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안 쓰고 그러는 것 같다. 안 되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잘 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것 필요 없이 내가 잘 던져야 한다. 잘 던지면 결과가 알아서 올 것이다.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안 되는 부분도 많다.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계속 경기 나가고 싶다. 빠르게 배워야 한다. 2년 차라고 해서 2년 차 타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 경기 배움을 얻고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내가 일등이야" 4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영연방경기대회 육상 여자 100m 결승에서 자메이카의 일레인 톰슨-헤라(맨오른쪽)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구 여제' 김연경 순천에 뜬다

13~28일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3년 만에 관중 입장

순천이 배구 열기로 뜨거워진다.

한국배구연맹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총 16일 동안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를 개최한다.

2019 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이후 3년 만에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관중이 입장하면서 한여름 코트가 더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컵대회가 무관중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관중석이 개방된다.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팀의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대회에는 V-리그 남녀부 14개 팀과 남자부 국군체육부대(상무)가 출전해 총 15팀으로 진행된다.

13일부터 20일까지 여자부 경기가 진행되고, 21일부터 28일까지 남자부의 대결이 전개된다.

여자부는 A조의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GS칼텍스와 함께 B조 페퍼저축은행,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KGC인삼공사가 순위 경쟁에 나선다.

남자부는 우리카드,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이 A조에서 경쟁하고 OK금융그룹, 대한항공, 국군체육부대, 삼성화재는 B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역시 대회 최고 관심사는 복귀전에 나서는 김연경(흥국생명)이다.

김연경이 속한 A조 흥국생명은 대회 첫날인 13일 오후 1시 20분 IBK기업은행과 개막전을 장식한다.

비시즌 새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남자부에서는 대규모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화재에서 우리카드로 이적한 황승빈과 반대로 우리카드에서 삼성화재로 둥지를 옮긴 하현용 등이 있다.

여자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페퍼저축은행 세터가 된 이고은이 이적 후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은 감독 데뷔전에 나서고, 고희진 감독은 남자부 삼성화재에서 여자부 KGC인삼공사 사령탑을 맡아 코트에 선다. 다시 돌아온 흥국생명 권순찬 감독과 삼성화재 김상우 감독의 첫 무대도 관심사다.

남녀 모두 조별 1·2위가 준결승에 오르게 되며 우승 상금은 5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3년 만에 관중과 함께 대회를 치르게 되면서 '축제의 장'도 마련된다.

이번 대회의 컨셉은 'V-FESTA'다. 배구(VOLLEYBALL)와 축제(FESTIVAL)을 합친 단어로 이에 맞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경기장 밖에는 컵대회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야외 Pub 컨셉의 푸드존이 설치된다.

토스로 과녁에 공 집어넣기, 스파이크로 과녁 맞추기 등 누구나 쉽게 배구를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존도 구성된다.

장내에서도 팬들이 참여해 1점 배구 경기를 펼치는 팀 대항 단체 코트 이벤트가 진행되고, 복불복 경품 추천 이벤트 등도 이어진다.

한편 온라인 티켓 예매는 여자부는 10일, 남자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티켓은 KOVO 통합티켓 예매처(www.vticket.co.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순천 팔마체육관 매표소에서도 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가 이뤄진다.

모자, 타월, 마그넷, 미니볼 등 6종의 컵대회 굿즈 상품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아홉수' 오타니 세번째 10승 도전 실패

시즌 10승-10홈런 기록도 연기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8·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한 시즌 10승-10홈런 달성에 또 실패했다.

오타니는 4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 경기에 2번 지명타자 선발 투수로 출전해 투수로 5.2이닝 7피안타 1볼넷 7탈삼진 3실점(2자책점) 한 뒤 1-3으로 뒤진 6회초 교체됐다.

오타니는 팀이 1-3으로 패하면서 시즌 7패(9승)째를 떠안았다. 평균자책점은 2.81에서 2.83으로 소폭 상승했다.

2018년 4승 2패, 2020년 1패, 2021년 9승 2패의 투수 성적을 남긴 오타니는 올 시즌 사상 첫 10승 고지에 도전하고 있다.

타자로 22홈런을 때려낸 오타니가 10승 고지를 밟는다면, 1918년 베이브 루스 이후 104년 만에 한 시즌 투수 10승-타자 10홈런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대기록을 앞둔 오타니는 아홉수에 걸린 듯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다.

오타니는 지난달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시즌 9승을 마크한 뒤 세 차례 등판에서 내리 부진했다.

지난달 23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전에서 6.1이닝 동안 홈런 2개를 내주며 6실점 패전투수가 됐고, 28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도 6이닝 동안 홈런 포함 8피안타 2실점으로 패배의 쓴맛을 봤다.

4일에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는 1-1로 맞선 6회초 무사 1루에서 숀 머피에게 좌월 투런 홈런을 맞았고, 2사 이후 볼넷과 안타를 허용한 뒤 교체됐다.

오타니는 9승 이후 최근 3경기에서 18이닝 10자책점, 평균자책점 5.00으로 부진하며 승리 없이 3패를 기록했다.

이날 삼진 7개를 잡은 오타니는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 행진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오타니는 이날 경기에서 타자로도 부진했다. 3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침묵했다. 시즌 타율은 0.255에서 0.253으로 소폭 떨어졌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한산: 용의 출현
2관	한산: 용의 출현
3관	한산: 용의 출현,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4관	비상선언
5관	비상선언
6관	비상선언, 미니언즈2
9관	비상선언, 미니언즈2, 헤어질 결심,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우주소전쟁 리틀스타워즈 2021
7관 씨네커플	외계+인 1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8관 씨네커플	탑건: 매버릭,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우주소전쟁 리틀스타워즈 2021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일시 : 2022.08.23.(화)
장소 :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415-52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8.02.(화)~31.(수)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